

“한옥마을 걸으며 맥주 한잔 어때요?”

전주시 내일 ‘차없는 거리’
이색 퍼포먼스·공연 등
‘가맥 페스티벌’도 인기

차 없는 한옥마을을 걸다가 명창들의 소리공연을 지켜본 뒤 모래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짜릿한 가맥맥주를 즐기면 어떨까.

오는 26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전주만의 문화·관광·맛 세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이날 하루동안 연간 1000만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경기전, 전주천, 기린대로 등 전주 곳곳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이날 열린다. 차 대신, 사람들이 도로를 따라 걸으며 문화 향기를 채우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행사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객사 앞 충경로 사거리~다카고 사거리 간 60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을 끄고 별을 쬐



다·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주제로 ‘청소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원탁토론’, ‘얼음조각 퍼포먼스’, ‘북극곰 인증샷’, ‘환경 매직, 수리수리 마술’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위터널’, ‘얼음 위에서 오래 걸리기’, ‘커피 음료 수 만들기’, ‘아이스버킷’, ‘물풍선 터트리기’ 등 막바지 터위를 이겨내기 위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도시를 걸으며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은 오후 8시부터 펼쳐진다.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린다”는 슬로

건으로 경기전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주무대로, 태조 이성계가 역사의 문을 열고 경기전 밖으로 나오며 방문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다.

조동달(익산), 김영자(대구), 김수연(군산), 왕기석(정읍), 송재영(전주) 등 명창들의 소리 공연이 이어지며 4개 테마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목대에선 김상지 서예가의 서예 퍼포먼스, ‘금파무용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애미아트’의 전통춤 공연을 볼 수 있고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오후 6시부터



▶ 지난해 열린 치맥·가맥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마시며 행사를 즐기고 있다. <전주시 제공>

침선장 임선옥과 민속목조각장 김종연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별빛기행’ 프로그램은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 제228호)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천문학 강의와 국악공연 등으로 구성한다. 한옥마을 골목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 입소문이 났다.

비슷한 시간, 모래내 시장에서는 제2회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열린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전주에서 발전한 독특한 음주문화로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맥·가맥 뿐 아니라 시장상인들이 선정한 안주도 맛볼 수 있다. 전주에서의 ‘가맥’ 문화는 1980년대 초반 전주 경원동 일대 작은 가게들이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놓고 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태동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구절초 테마공원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정읍시, 28억원 투입 짙라인·캠핑파크·사계절정원 조성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에 레포츠시설인 짙라인과 캠핑파크, 사계절정원을 만들어 사계절 관광지 조성된다.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국비 등 28억원을 내년부터 3년간 투입한다.

짙라인은 부지봉에서 섬진강 상류를 거쳐 구절초공원으로 연결되는 350m 길이로 설치한다. 짙라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철사줄을 연결해 도르래를 타고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산악형 레저 시설이다. 산 정상에서 섬진강으로 뛰어드

는 듯한 아찔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캠핑파크는 공원 내 다목적광장과 주차장을 활용해 8000㎡ 부지에 조성하고 인근에는 구절초를 이용해 차와 막걸리를 만들고 족욕 등을 해볼 수 있는 체험장도 설치한다.

사계절정원은 계절별로 꽃이 피는 꽃나무와 조경수를 심어 가온 정원으로 1만 3000㎡ 규모로 만든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구절초 재배면적만 10만㎡로 섬진강 상류인 옥정호의 물안개와 숲술, 구절초가 만개한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위도서 아열대성 대형 나방 발견

부안군 위도에서 국내에서 기록된 적이 없는 대형 나방(사진)이 발견, 눈길을 끌고 있다.

부안뉴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은 부안군 위도의 곤충상 조사 과정에서 날개 너비가 135mm에 이르는 대형 나방을 채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종은 분류학적으로 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종(Lassa zampa)으로 밝혀졌다. 곤충탐사과학관은 나방 이름을 가칭 ‘열대제비꼬리나방’으로 붙였다.

손민우 부안뉴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 박사는 “아열대성 나방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열대제비꼬리나방처럼 초대형



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도가 기후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열대 또는 아열대 곤충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군산시간여행축제’서 1930년대 문화체험 내달 9일부터 사흘간 개최

행사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천막극장·미션수행 등 다채

‘2017군산시간여행축제’가 군산시 옛도심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군산은 신흥동 일본식가옥, 동국사 뿐 아니라 1899년 개항 이래 외부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일제 수탈의 흔적이 원도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축제는 ‘근대 이야기 속으로’를 주제로 펼쳐지며 행사 시간을 야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초원사진관의 미디어 파사드쇼와 천막극장, 선창가 주점 등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들을 오래 머물러 있도록 했다.

시간여행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퍼레이드는 1930년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형태로 진행되며 15일과 16일 2차례 이뤄진다.

또 가족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30년대를 배경으로 ‘살의 수탈을 막아라’, ‘독립군을 보호하라’ 미션수행, 독



지난해 열린 시간여행축제 공연 장면.

<군산시 제공>

립극장 수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백투더 1930s’도 전년도에 비해 업그레이드해 진행된다.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에 걸맞은 전시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2017년에

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시간여행 타임에 담았다.

1930년대의 커피문화를 체험하는 전국 최초 ‘1930s 가바(coffee)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군산 뉴스(라디오-토코스), 두레다숨 시간여행(청사조용 시간여행), 마을연주회 등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 준비하는 시민주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

전주비빔밥축제 참여자 모집 내달 15일까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10월 26~29일)’에 간편 음식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맛있는 정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맛있는 정원’은 축제 기간 비빔밥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전주형 먹거리를 선보이는 자리다.

모집 대상은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판매가격 3000원 내외의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음식의 주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로 오는 9월 1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안군의회, 매월 1일 ‘명예의장’ 운영

무안군의회가 ‘1일 명예의장’ 제도를 운영한다.

‘1일 명예의장’은 의회 문턱을 낮춰 군민을 매월 하루 동안 명예의장으로 위촉, 의정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

도다.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의회는 초대 1일 명예의장으로 정양수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장을 위촉, 오는 28일 의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물도 좋은 7천1500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오피스

- 별장용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당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원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층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가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부안군 번산면 땅 1675㎡ 건물2층 430평 객실 43개 10억 가격조정됨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물 334㎡ 건물 임대중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군, 비금도-팻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무인도,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까지 100억이상, 투자까지 최고
- 매 14억, 현금 2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